

A	MOAW와 MEAW를 이용한 개교와 과교의 치료증례 전영진, 손우성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p>전치부 총생이 심하거나 순측 경사가 심한 경우 많은 중례에서 주로 소구치를 발치하고 치료한다. 그러나 총생과 순측경사가 심하지 않고 구치의 근심경사가 있는 경우 구치를 바로 세우고 후방 이동시켜 치료를 많이 시행한다.</p> <p>제3대구치가 양호하게 발육하는 환자에서 제2대구치를 발치하고 제1대구치에 Satto가 고안한 MOAW를 사용하면 보다 대구치의 수직적 조절과 직립이 용이하므로 효과적으로 교합 고경을 조절하여 교합평면을 제구성 할수 있다. 또 구치의 원심이동을 통해 전치부 총생과 경사도도 개선할 수 있다. MOAW와 MEAW를 이용하여 개교와 과교 환자에서 제2대구치를 발치하여 치료한 중례를 소개하고자 한다.</p> <p>증례 1 : 개교 환자</p> <p>총생이 심하지 않고 전치부에 개교를 동반한 개교증례로써 4개의 제3대구치 발육이 양호하여 수직적 조절을 위해 제2대구치 4개를 발거한후 MOAW와 MEAW를 사용하여 치료한 결과 심미적이고 안정적인 교합을 얻을 수 있었다.</p> <p>증례 2 : 과교 환자</p> <p>하악 제1대구치가 후천 결손되어 제2대구치의 근심경사가 심하고 4개의 제3대구치가 양호하게 발육중인 II급 2류형 과교환자에서 상악 제2대구치 2개를 발치하여 MOAW로 후상방 이동시켜 II급의 치열관계를 개선하고, 하악에선 제2대구치를 근심이동시켜 제1대구치의 공간을 폐쇄하였으며 현재 4개의 제3대구치가 양호하게 맹출중이다.</p>	